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보도시점 : 2018년 8월 16일(12시)부터

- 문의 : 산업경제연구부 김시백 부연구위원
(063-280-7131/kimbio96@jthink.kr)
- 담당실장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2023 세계 잼버리 이후, 전북 경제에 긍정적 효과

잼버리 성공적 개최 위한 SOC 조기 구축 효과 6조 4,545억원
잼버리 기간 동안 지역 이미지 제고 등 경제 효과 2,793억원
잼버리 이후, 캠핑산업 성장 효과 매년 6,724억원
글로벌 리더센터 건립에 따른 효과 매년 62억원
잼버리 이후 청소년 중심 여가 문화 산업 거점으로 개발해야

-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에 성공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잼버리 유치 효과를 지역 경제로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잼버리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
- 2023 세계 잼버리 준비 단계에서 SOC 조기 구축 효과가 발생하며, 잼버리 기간 동안에는 방문객의 지출 및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 효과가 발생하고 잼버리 종료 이후에는 잼버리 부지를 활용한 관광산업과 캠핑산업의 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 ‘2023 세계 잼버리 유치 기대효과 및 극대화 방향’을 통해 2023 세계 잼버리는 기존의 스포츠,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지만, 참가 규모 측면에서 큰 이벤트임과 동시에 이벤트 종료 이후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.
- 잼버리 준비 단계에서 새만금의 용지 조성 및 SOC 등 기반시설 구축은 잼버리

와 상관없이 계획되어 있었지만,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구축이 이루어진다면, 6조 4656억원의 생산액과 2조 855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, 이 중 전라북도는 3조 6,216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와 1조 2,589억원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- 잼버리 기간 동안에는 약 9만여명의 방문객이 전라북도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소비 활동으로 인해 1,198억원의 생산액 증가, 1,098명의 고용 창출과 406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이 중 전라북도에서는 각각 755억원의 생산, 812명의 고용과 265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그리고 대회 기간 동안 참가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향상 효과가 자국 스카우트 회원들에게 전파되어 발생하는 브랜드 제고 효과는 1,595억원일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잼버리 종료 이후에는 잼버리 프로그램에 따른 후속 수요 증가로 인해 캠핑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, 캠핑 산업의 수출 및 내수 시장 확대에 의한 신규 수요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을 전라북도에 구축하게 될 경우, 전라북도에는 매년 2,833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1,619억원의 GRDP 기여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.
- 또한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유치 과정에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글로벌 리더 센터를 조성할 경우 매년 12,000여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, 이로 인해 전라북도는 매년 74명의 고용 창출과 17억원의 GRDP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잼버리를 통한 기대 효과 중 준비 단계와 행사 기간 단계에서의 효과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는 단발성 효과로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.
- 잼버리로부터 파생되는 연관산업은 캠핑산업과 청소년 중심 체험 관광산업으로

볼 수 있으며, 이들 산업들을 기존 전라북도 산업 및 자원들과 연계하여 특화 발전할 경우 기대효과는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.

-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일대를 청소년 중심 여가 문화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야 하며, 이를 위해 탄소소재 및 안전 융복합 섬유와 접목한 캠핑 용품 클러스터 조성, 중국 시장을 타겟팅한 유통망 구축과 청소년 캠핑 체험 연계 교육 중심 지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.